

다음 달에는

전미화 그림책

※ 이 지도안은 사계절출판사 홈페이지(www.sakyejul.net) > 한 학기 한 권 읽기 > 독서 지도안(초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교과 연계**
- 국어 1-2-10. 인물의 말과 행동을 상상해요
 - 통합 1-1-여름-1. 우리는 가족입니다
 - 국어 2-1-8. 마음을 짐작해요
 - 국어 2-2-1. 장면을 떠올리며
 - 국어 2-2-4. 인물의 마음을 짐작해요
 - 통합 2-1-여름-1. 이런 집 저런 집
 - 국어 3-1-독서단원. 책을 읽고 생각을 넓혀요
 - 국어 3-1-10. 문학의 향기
 - 국어 3-2-1. 작품을 보고 느낌을 나누어요
 - 국어 3-2-6. 마음을 담아 글을 써요
 - 도덕 3-1-3. 사랑이 가득한 우리 집
 - 국어 4-1-1. 생각과 느낌을 나누어요
 - 국어 4-2-4. 이야기 속 세상



작성자 청원초등학교 최유라

■ 도서 소개

깊은 밤, 아빠와 아들이 짐을 챙겨서 이사한 곳은 공사장 앞 봉고차. 아빠는 공사장에서 일하며 봉고차에서 혼자 지내는 아들을 살뜰히 돌봅니다. 봉고차에서 생활하며 아들의 밥을 챙기고, 다음 달에는 꼭 학교에 보내 주겠다고 약속하는 아빠! 하지만 아빠의 약속은 자꾸만 미뤄집니다. 눈물이 그렇그렇 어수룩한 아빠와 아빠의 마음을 헤아리는 속 깊은 아들의 가슴 뭉클한 이야기가 작은 희망과 온기를 선사하는 그림책입니다.

■ 어른을 위한 안내서

『다음 달에는』을 읽고 나면 마음 한쪽이 복잡해집니다. ‘이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읽어 줘도 괜찮을까’, ‘이 이야기를 어떻게 아이들과 나눌까?’ 고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건 어른들의 기우 아닐까요. ‘다음 달에는’을 말하며 우는 아빠의 걱정과는 달리 봉고차 안에서도 자신의 삶을 돌보며 살아내는 아이를 보면요. 어른들의 걱정 때문에 좋은 그림책을 못 만나게 하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그림책이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가난한 집의 이야기, 빚에 쫓겨 다니느라 학교를 못 가는 불쌍한 아이의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이 이야기는 서로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이들이 가족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 줄 겁니다. 그러니 걱정 말고 아이와 함께 이 그림책을 마음껏 읽어요. 아빠만 살펴보며 끝까지 읽어 보고 다시 아이만 보면서도 읽어 봐요. 그리고 영영 우는 어른의 아이 같은 마음을, 담담한 아이의 어른 같은 위로에 귀 기울여 보기로 해요. 아빠와 아이가 서로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이야기하기에 최고의 책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 활용법

- 책 읽기 전 : 표지를 보며 어떤 이야기일지 상상하고 제목의 의미도 추측해 봅니다. 아이들에게 ‘다음 달에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물어보며 아이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 책 읽으면서 : 이야기 중심으로, 그림 중심으로 여러 번 읽어 준다면 더 재미있게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빠와 아이의 마음은 어떤지 살펴보고, 더 나아가 각 장면의 속마음을 표현하는 활동도 해 보세요.

- 책 읽은 후 : 책의 뒷이야기를 상상하고 나의 경험과 연결시켜 봅니다. 아이들과 진짜 가족의 의미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가족 간에 너무 사랑해서 오해했던 경험을 함께 이야기하고, 그 바탕에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책을 읽기 전

‘다음 달에는’ 상상하기

책의 표지를 살펴보며 이야기를 상상해 봅시다.



그림을 살펴봅시다.

- 물건들을 살펴봅시다. 무엇이 있나요?
- 이곳은 어디일까요?
- 아이를 살펴봅시다. 어때 보이나요?

책 제목을 살펴봅시다.

- ‘다음 달에는’ 뒤에 어떤 말이 들어갈까요?

- 다음 달에는

- 여러분 ‘다음 달에는’ 무슨 일이 생겼으면 좋겠나요?

책 표지를 활짝 펼쳐 봅시다. 아이가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책 읽으면서

숨은 마음 찾기-아빠

책을 읽으며 숨은 마음을 찾아봅시다.

책에 등장하는 아빠는 울고 있어요. 아빠가 울지 않는 순간을 모두 찾아봅시다.

그때 아빠는 왜 울지 않았을까요? 아빠의 마음을 생각해 봅시다.

책에 등장하는 손톱을 살펴봅시다. 아빠의 손톱과 아이의 손톱이 나와요.
각각의 손톱은 어떤가요?

손톱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빠의 마음을 생각해 봅시다.

책 읽으면서

숨은 마음 찾기-아이

아이를 중심으로 책을 읽으며 아이의 마음을 상상해 봅시다.

아이가 속상할 때는 언제일까요?

아이가 속상하지 않을 때는 언제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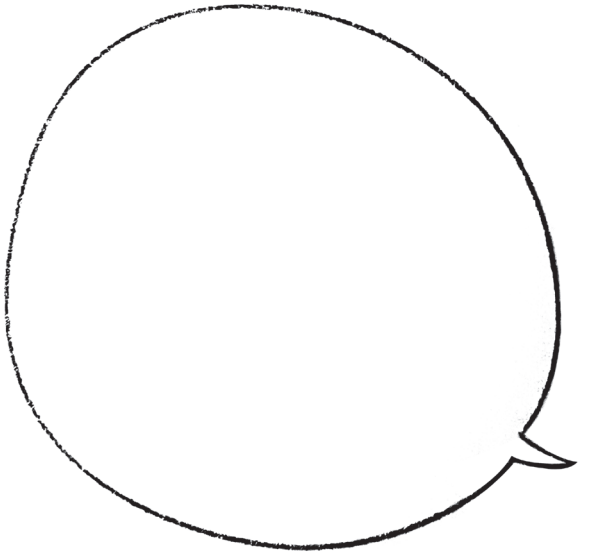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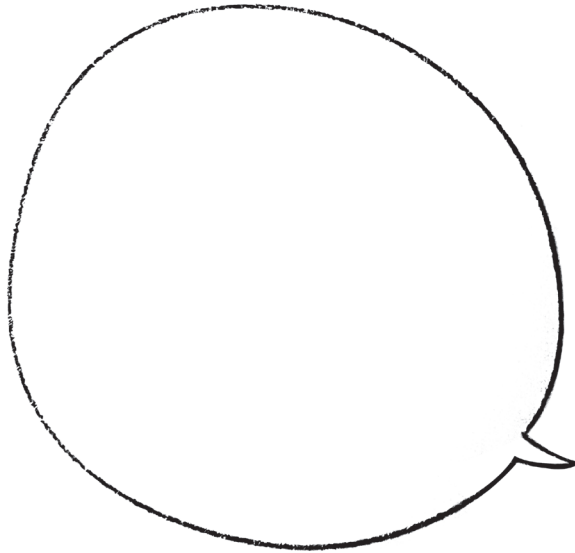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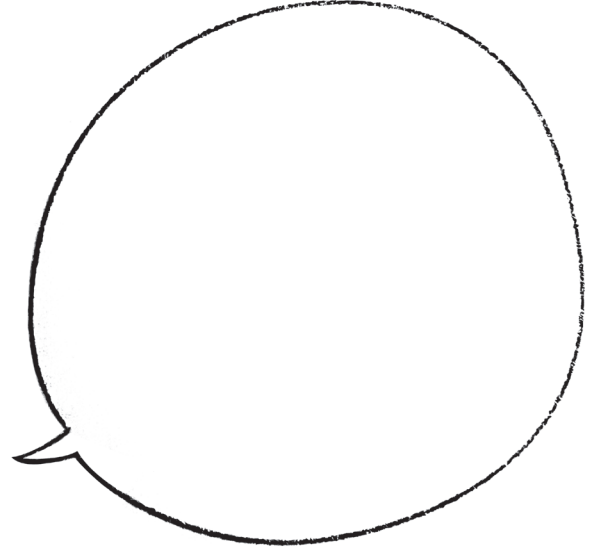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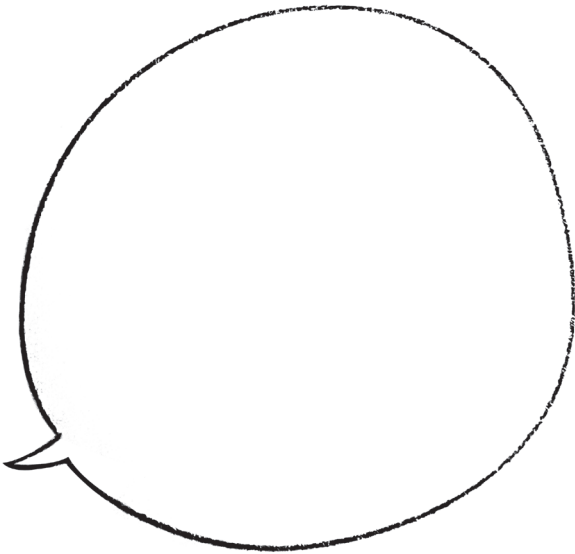
아빠와 아이가 속상한 때가 같나요? 다른가요? 비교해 봅시다.

책 읽으면서

숨은 마음 찾기

책 속 인물의 마음을 상상해 봅시다.

1. 장면을 골라 등장하는 인물의 마음이 어떨지 상상해 봅시다.
2. 아래 말풍선에 내가 고른 장면의 인물이 어떤 속마음을 가지고 있을지 써 봅시다.
3. 글을 쓴 말풍선을 오려 책 속 장면에 넣어 봅시다.



※ 속마음 말풍선으로 만든 책 장면을 사진으로 찍거나 서로 비교해 봐도 좋아요.

책 읽은 후

그다음 달에는 무슨 일이?

책을 다 읽고 뒷이야기를 상상해 봅시다.

그다음 달에는 아빠와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요?



책 읽은 후

나는 그런 적 없었나요?

책을 읽고 나의 경험을 떠올려 봅시다.

아빠는 아이에게 계속 미안해하며 눈물을 흘려요.
혹시 어른이 나에게 미안해하거나 눈물을 흘린 적이 있다면 이야기해 보아요.

어른이 추측한 내 마음과 실제 내 마음이 달랐던 경험을 떠올려 봅시다.

책 속에서 아빠와 아이는 서로를 아끼고 소중하게 여겨요.
내가 생각하는 가족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가족을 위해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요? 무엇을 해 주고 싶나요?